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
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
라"(이사야 60장 1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오직 말씀만, 믿음만, 은혜만의 행동원리”

시온성대행진 성황리에 진행중, 앞으로 이틀 남아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함께 살리라”(찬송 493장)

시온성대행진이 출발한지도 벌써 13일 지나 이제 앞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새벽기도회(오전5시~6시) 매일 3천여명의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어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쉬임없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들리기 위한 이번 성회는 달했던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쏟아져 흘러오고 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시온성대행진은 교회개성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시간시간마다 넘치는 은혜로 각박하고 매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고 있다.

6월6일부터 실시되었던 시온성대행진은 첫날「순례자 아브람」을 시작으로 하여 둘째날「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 셋째날「잘못된 선택」, 넷째날「성숙한 신자 아브람」, 다섯째날「살렘이나? 소돔이나?」, 여섯째날「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일곱째날「약속된 고사는 아브람」, 그리고 여덟째날「아브람이 믿은 것」, 제목으로 이종윤 위임목사가 설교했다.(설교요지는 2, 3면 참조)

이목사는 새벽기도회 설교에서「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엄청난 원리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온성대행진은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신성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각 교회마다 영적 각성운동이 누룩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교회와 민족위한 시온성 임진각기도회

1,500여명 참가 북한위에 특별기도 위해

교회와 민족을 위한 시온성 임진각 기도회가 지난 6월 13일(화) 12시30분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개최되었다.

1천 5백 여명의 성도가 참가한 동 예배 및 기도회에는 김학전목사(2교구 지도) 사회로 진행, 찬송 248장을 다같이 부른 뒤 이용선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성경 시편 107편 19절을 봉독한 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후 이종윤 위임목사가 “고난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설교가 끝난 후 참석한 온 성도들의 통성 기도가 있었고, ①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명선전도사가, ②북한동포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김춘지권사, 그리고 ③교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김여준집사가 각각 기도했다.

기도와 간구 말씀의 잔치
눈물의 성회 3일간 성황

시온성대행진 눈물의 성회 첫째날 집회가 지난 6월12일 오후7시 본당에서 있었다.

1천5백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이날 집회에는 윤용규목사(시온성대행진 부참모장) 사회로 진행, 오후회장로(시온성대행진 참모장)의 기도가 있었다.

대학부 NMC의 특송이 있은 후 대구제일교회 시무인 이상근목사가 “거듭난 인간”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설교에서 이목사는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변화가 아닌 죄에 대한 발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람이 거듭나면 성경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말은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로 옮겨감을 강조했다.

설교 이후 약 30분 동안의 합심기도가 있었다. 시온성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피로 사신 총현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책임있는 교회로서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충현의 성도마다 거듭난 인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과 세계선교의 비전과 헌신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민족이 되고 이 시대에 향도적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첫째날 현재)

병원방문 봉사활동
에스더 6지회 회원들

에스더 6지회(회장/어수덕권사)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첫째 화요일 국립의료원에서 수술환자를 위한 가제접기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동 봉사활동에는 6지회 산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카메라초점



▲ 교회와 민족을 위한 시온성 임진각 기도회가 지난 13일 오후 1시 자유의 다리 앞에서 1,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강



▲ 장년1부(30~39세)가 주최한 특강 “평양 봉수교회를 다녀와서”의 집회에 5백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신앙인을 위한 의학강좌



▲ 의료전도회가 주최한 「신앙인을 위한 의학강좌」가 지난주일 있었다.

청년1부 초청전도집회

6월25일 오후1시 소석관 601호

교회학교 청년1부(부장/윤광일장로)는 오는 6월25일(주일) 오후1시 소석관 601호에서 초청전도집회를 개최한다.

26세 이하의 형제, 자매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많이 참석해 주기를 주최측은 바라고 있다.

이번호 8면 발행

시온성대행진 새벽기도회설교요약

강사/ 이종윤 위임목사

제1일

6월 6일

순례자 아브람

본문: 창 12:4-9

시온성 대행진 15일간 큰 결심을 하고, 개인의, 민족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아브람의 일생이 소개될 것입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고 하란에선 조금 머뭇거리다가 곧 하란을 떠났다는 사실을 본문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란에서 영원히 있을 것으로 알았으나 하나님께선 아브람이 그곳에만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람은 어딜 가든지 영주할 것으로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

“개인, 민족의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털어놓자”

였을 것입니다.

첫째, 순례자 아브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은 이 세상에서 삶의 모델이 되어줍니다. 아브람은 우리에게 1) 하나님을 믿음, 2)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 3)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음으로서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영원한 처소를 생각하며 지내는 순례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부요한 생활이 더 좋다고 하거나 지금이 영원한 줄로 아는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례자란 막연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그러므로 그는 비전과 인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힘쓰는 노력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건디며 노력하며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망과 영광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가나안인도 거하는 것을 보고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7절) 그는 가나안 땅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순례자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아브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목적이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유나 성공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이며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람은 목적이 분명하며 그가 살았던 방향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창 11:26이후에 보면 그는 혈혈단신으로 갈대아를 떠났으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며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형편에 처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3일

6월 8일

잘못된 선택

본문: 창 13:1-13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늘 강하지만은 않았습니 다. 그의 불신앙 때에도 자신에게 손해만이 주어졌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람이 그냥 애굽에 머물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13:1)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브람의 위대성입니다. 그는 자기의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잘못을 깨우친 후에 즉시 애굽을 떠나서 벨엘로 갔습니다.(3).

우리도 죄를 범한 것이 확실할진대, 회개한 후에는 즉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나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교회갱신이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라면 거기서 복음화된 민족 통일은 이뤄질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13:9)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롯은 자기 확신과 자만심에 이끌려 요단 온 들을 택했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모든 원리를 하나님께 돌렸으나 롯은 그러지 못한 이유로 실패의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은 불신앙으로 잠시의 후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섰습니 다.

오늘 성도들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 40:26 이하) 그래야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삶이 어떤지도 알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 전능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엄청난 원리를 깨닫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롯은 악을 악이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되고 복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4일

6월 9일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

본문: 창 12:10-20

창 12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아브람의 일생은 ①아브람의 소명, ②그의 타락, ③그의 회개, ④전투장면 등으로 나옵니다. 이는 마치 영적 순례자들이 날마다 행하는 모습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람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물질(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시 31:10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였습니다. 도움을 얻으려면 시온으로 가야하고 벨엘

“성숙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로 가야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할 아브람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부터 이미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고, 더욱이 그런 문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둘째, 그는 이제 불신앙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는데 아브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바다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큰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로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본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총현교회 지교회 설립,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맞이하려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온성대행진의 새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습니다.(9절). 아브람이 벨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게 됩니다.

넷째, 그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 3:5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브람의 한 마디의 거짓말이 아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바로를 속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내리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아브람은 벨엘로 돌아왔으나 죄를 졌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온 재앙과 이방인에게서 수치와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환경을 타하기보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총현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민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2일

6월 7일

성숙한 신자 아브람

본문: 창 13:14-14:16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고 그에게 있는 모든 중요한 것을 먼저 소유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희망을 받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네가 만난 사람마다 선민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것 같고 재치가 있어보이는 롯이라는 청년은 어두운

“이북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소서”

그들 속으로 점점 밀려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리한 선택이 재앙으로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롯이 소돔을 바라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패요, 악의 도시인 소돔이 좋게 보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 기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왕들과 나라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람은 ①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던 성숙한 신자였습니다. 조카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자 수수방관 않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믿음의 아들 롯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브람은 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②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성숙한 신자였습니다. 소수의 무리로 전쟁을 승리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선 아브람을 통해서 대적 원수를

무릎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창과 검을 가진 이방 병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20C 골리앗이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를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는 38선이 무너지고 이북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신선한 충격, 폭포수같은 생명의 말씀

제5일

6월 10일

살렘이나? 소돔이나?

본문: 창 14:21-24

살렘이란 평화를 의미하는 살롬과도 같은 의미이고, 소돔은 악하고 부패한 도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아브람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 아브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전쟁을 끝낸 뒤에 노예와 재물을 가질 기회가 있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게 하소서”

말았습니다. 개선장군인 그는 영광을 받을 만 하였으나 그는 일찌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시라면 타락한 소돔왕에게 재물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우리 신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듯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러한지 자신을 살펴봅시다.

둘째, 아브람은 절대 헌신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큰 약점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절대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성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충현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브람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칩니다. 십일조는 신자의 기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마음은 다른데 가 있으면서 십일조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도 곤란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롬 6장에서 성찬식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고, 생명과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요 11장, 17장)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연합하는 것이 생명과 기쁨을 얻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란 삶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몸되신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몸되신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면서 떡과 포도주를 바친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교제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거듭난 신자,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일

6월 11일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본문: 창 15:1

왜 곤충의 다리는 6개일까? 3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물체를 안전하게 지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둘 보다는 셋이 훨씬 안전한 것입니다.

아브람의 생애도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민족교회의 신앙고백”

부르심에 대하여 영원한 섭리와 계획에 변함이 없으시며,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마친 뒤에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는 아브람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즉 보호자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고, 가족을 믿고, 재산과 명성을 믿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믿고 있으면 후엔 실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방패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뿐입니다.

삼하 22:2 이하에 여호와를 비유하기를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탄과 싸우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

우리는 검을 가지고 사탄과 매일매일 전투를 하되, 우선은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사탄과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고전 10:13에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에 유익이라”고 하였습니다(빌 1:12).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38선이 없었더라면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하며 현재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안하리라고 하지만 실은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38선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욱 정신차려야 하고 또한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탄이 없다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대 너무 나태해 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검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우리 교회의, 우리 민족 교회의 신앙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6월 12일

약속받고 사는 아브람

본문: 창 15:2-5

인생의 모든 일은 약속의 관계입니다. 결혼 약속, 직장 약속, ... 이 세상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안전한 사회인지 척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쉽게 무너지는 사회나 개인 단체 국가는 어렵고 혼란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다짐을 하건만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①사람의 신실성의 결여, ②환경 때문에, ③실력이 없기 때문에 ... 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약속에 신실하시므로

우리 가운데도 해결못한 문제를 안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문제와 씨름하다가 나온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말시다.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께선 약속을 새로이 해주십니다.

오늘도 아브람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마침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면 그 약속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던 아브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우리가 든든하고, 영원히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람은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열려말라, 그리고 땅을 주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선 아브람이 어려운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다.

아브람은 인간적인 불평으로 인하여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단정해 버립니다(2, 3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았으므로 쉽게 해결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복음의 복음화를 기다리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때를 기다립시다.

오늘 약속의 사람 아브람은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제8일

6월 13일

아브람이 믿은 것

본문: 창 15:6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의 이신득의 교리와 일치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단어-믿음, 의, 여기졌다-를 주의깊게 봅시다. 믿음은 아브람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은혜의 교리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칼빈 선생은 믿음이란 “안경”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으며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을 수없이 고백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복음화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을 바르게 이해하면 개인의 종교개혁, 교회의 개혁운동, 민족의 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믿음을 대신할만한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함에 이르고 칭의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롬 3:21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의로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믿음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도구입니

다.

둘째,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너는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게 나오라고 하셔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말은 곧 인격입니다. 상대를 믿는다는 말은 상대방의 말과 인격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가변적이지만 어찌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본교회 남여전도회가 지원하는 교회

바울 · 디모데 · 한나 · 에스더 · 마리아전도회 70개

본교회 남·여전도회 70개 지회에서 대외 이과같은 현상은 새세배당 완공 이후 급성 한 교회방침의 열매로 평가받고 있다. 로 지원하는 개척교회 지원 및 위탁교회가 장한 교세 신장은 물론, 남·여전도회를 확대 성도들의 남·여전도회 참여와 계속적인 분할하여 효과적인 전도임무를 수행토록 기도를 바라고 있다.

■ 지교회

지원교회	교역자명	전화번호	주 소	지 원 처
금 현 교 회	장병기 목사	(0337) 82-1016	(469-850)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298-2	바울협의회
서 현 교 회	김창길장도사	(0365) 461-5618	(252-84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1리	디모데협의회
재 현 교 회	허상은 목사	(0355) 34-2778	(486-800) 경기도 연천군 고문2리	에스더12
부 현 교 회	정희준전도사	(0365) 461-6284	(252-910)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2번 90-1	한나 14
신 현 교 회	임종호전도사	(0398) 2-1016	(233-8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원리	마리아 12 한 나 12

■ 지원교회

지원교회	교역자명	전화번호	주 소	지 원 처
월 립 교 회	최태남 목사	(0443) 42-2140	(393-820) 충북 제원군 금성면 월림리 2구	한나 1
라베도교회	김정영전도사	(0632) 42-5355	(539-910) 전남 진도군 조도면 상조도	한나 2
봉 덕 교 회	박재호전도사	(0693) 72-2732	(526-830) 전남 영암군 도포면 덕화리 188번지	한나 4
송 풍 교 회	반석장도사	(0655) 32-1396	(567-840)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회룡	한나 9
동 성 교 회	김순구 목사	(0394) 32-5283	(240-290)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427번지	한나 10
삼 부 교 회	곽봉섭전도사	(0631) 74-6183	(535-830)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저동	한나 10
울 치 교 회	김봉숙전도사	(0373) 72-3393	(230-870)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 9리	디모데협의회
송 학 교 회	이용호 목사	(0338) 73-2693	(476-910)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1리 287	디모데협의회
대 광 교 회	정광성 목사	(0418) 43-7548	(337-815) 충남 아산군 염치면 대동리(황굴)	바울 11 바울 7
웅 정 교 회	전우성전도사	(0373) 72-6128	(230-840) 강원도 영월군 서면 웅정리골	에스더 1
반 천 교 회	이영재전도사	(0398) 62-8878	(233-87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1리	에스더 2
상 화 교 회	윤유선전도사	(0662) 63-7961	(556-830) 전남 여천군 화정면 상화리 135-1	에스더 7
유 천 교 회	권창기 목사	(0398) 62-4519	(233-840) 강원도 정선군 북면 유천1리	에스더 10
조 발 교 회	이영봉전도사	(0662) 63-0416	(556-830) 전남 여천군 화정면 조발리	에스더 10
육 도 교 회	김진태전도사		(353-840) 충남 보령군 오천면 효자2리 육도	마리아 1
월 포 교 회	곽금철전도사	(0666) 33-8887	(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심평리 월포	마리아 1
셋 별 교 회	이양화 목사	(0371) 44-8401	(151-053)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둔둔리	마리아 4
죽 도 교 회	배강호전도사	(0677) 63-5565	(585-940) 전북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마리아 7
천 곡 교 회	김준옥전도사	(0373) 72-3490	(230-870)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2리	마리아 10
연 흥 교 회	허길장전도사	(0666) 33-9038	(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808	마리아 3 마리아 4
도 전 교 회	한상현 목사	(0398) 62-5300	(233-84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1리	마리아 14
옥 산 교 회	서홍일 목사	31-3543	(741-870) 경북 금릉군 남면 옥산리 368	디모데 1
상무반석교회	한수열 목사	(062) 365-6733	(506-157) 광주시 광산구 마북동 165-20	디모데 7
영 흥 도 교 회	박순일 목사	434-7460	(409-870) 경기도 용진군 영흥면 내오리	대학부 에스더 2
산 호 교 회	채철석 목사	(0363) 2-5480	(209-82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1번 1218-2	바울 13
행 구 교 회	차정삼 목사	(0371) 43-0715	(220-160)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산185번지	바울 3
작 은 자 교 회	김동식 목사	577-4997~8	(135-23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63-6	바울 5 바울 10
두 란 도 교 회	임상규 목사	(0345) 83-7662	(425-150) 경기도 안산시 일동 281-1-10	디모데 13
도 사 리 교 회	강부길 목사	(0364) 481-4456	(255-80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2번	에스더 9
구 절 중 양 교 회	이수록전도사	(0398) 62-5117	(233-875) 강원도 정선군 북면 구절1리 3번	한나 8

■ 위탁교회

지원교회	교역자명	전화번호	주 소	지 원 처
고 양 교 회	이창수전도사	(0398) 62-6521	(235-87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 2번	시애틀한인교회
용 산 교 회	김덕래전도사	(0398) 62-8859	(233-875)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1리	시애틀한인교회
적 성 교 회	김순복전도사	(0395) 52-8074	(235-030)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8동2번	뉴욕총회교회
능 국 교 회	임기수 목사	(0334) 73-6578	(456-910)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능국리 393	뉴욕총회교회
여 미 교 회	양병순전도사	(0362) 42-1668	(339-910)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1207	라성총회전교회
수 리 교 회	정삼섭전도사	(0631) 75-9910	(535-910) 전남 신안군 흑산면 수리 168	라성총회전교회
영 산 교 회	박성원전도사	(0631) 75-9760	(535-910)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라성총회전교회
학 산 교 회	최승천전도사	(0391) 3-3606	(213-830) 강원도 영주군 구정면 학산1리 5번	김성숙
성 산 교 회	김광배 목사	418-7853	(138-229)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3-8	디모데 7지회
봉 정 교 회	유남표 목사	(0398) 62-6553	(233-870)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정리	알렐루한인교회
미 산 교 회	원인석전도사	(0374) 32-3992	(232-820)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을계리	홍콩선교교회
노들담양애자 직업훈련원	박연화 외 3명		(403-050) 인천구 북구 계산동 산40번지	홍콩선교교회
화 순 도 곡 출 양 교 회	배재를 목사	(0612) 72-4278	(519-830)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355-2	김동삼 장로
성 산 교 회	장재윤 목사	(0337) 83-6172	(469-840)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1리 182-6	김동삼 장로

■ 군목 및 경목 지원

지원교회	교역자명	전화번호	주 소	지 원 처
비 룡 교 회	박병주 군목	(0351) 63-5573	(482-870) 경기도 양주군 남면 신산리	한나 3
선 봉 교 회	문원철 군목	744-1268	(449-806) 경기도 용인군 용인을 김량장리 462-2 아파트 15-204	한나 5

육군6612부대	나문찬 군목	(037)
제비울교회	이은택 목사	(033)
해사교회	유효근 목사	(055)
독수리교회	조상구 군목	(자) (교)
화랑교회	김원필 군목	(036)
기린대교회	윤병국 목사	(036)
시경경목실	김진철 간사	752-
강남경목실	이진현 목사	568-
서초경목실	이윤식 목사	533-

지원교회	교역자명	
보훈병원	황도일 목사	483-
경찰병원	이금하 목사	292-
서울대병원	이중구 목사	7601
서울적십자	김현석전도사	737-
고려병원	송준명전도사	918-
강남병원	신옥희전도사 홍명선전도사	568-
순천향병원	조희자전도사	798-
국립의료원	한영성 목사	265-
중대부속병원	유인철 목사	798-
영동세브란스	김성환 원목	556-

지원교회	교역자명	
사랑의편지	여운하 장로	732-
터미널살당소	이윤석 목사	591-
지화천선교회	배순조 목사	584-
여련이 전도협회	권영섭 총무	332-
사랑의집	박영배	433-
애련하우스	정덕환 원장	681- 613-
잘미회	김동화	744-
운천노인회	이정남 원장	249-
살롬한가족 선교회	김만국 목사	
강릉씨씨씨	이무용 간사	(039)
영광교회 (명인)	김성환 목사	406-
삼보교회 (윤락)	박창윤 목사	694-
새원교회 (강애)	박상순전도사	886-
정송감호소	김혜순전도사 김선미전도사	413-
춘천교도소	박양덕전도사	273-
무지개선교회		
갈릴렙사회 아들의집	김복선전도사	(034)
현대건설	서원찬전도사	743-
대학부 엘·엘·시	김영은 집사	552-
대학부 씨·유·엘	김영은 집사	552-
적광선도부	송태근 목사	562-
희포전도부	손철 집사	562-
청년 I 부	김익경 목사	562-
청년 II 부	김준태 목사	562-
대학부 학원전도	김영은 집사	562-
대학부동맹	김영은 집사	562-
한국청소년 선교회	김원균전도사	868-

처

서

(220-031)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992번지 21동 5반 통일아파트 6동 501호	한나 7
(487-860)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4리	한나 8
(645-012) 진해시 도만동 해군아파트 6동 102호	마리아 9
(411-910)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화전리 218 군인아파트 라동 208호	에스더 14
(252-82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4리 화랑아파트 5-106호	에스더 5
(252-84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5리 덕다리 관사 114호	에스더 6
(100-094) 서울시 중구 남대문 4가	디모데협의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	한나 8
(135-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	마리아 2

■ 병원(원목 지원)

주 소	지 원 처
(134-060)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6-2	한나 11
(133-200)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16-13	한나 13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한나 13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164번지	한나 12
(110-524) 종로구 명륜동 4가 2번지	한나 4
(135-90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지방공사	전도위원회 에스더 3
(140-210)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번지	에스더 4
(100-196) 서울시 중구 장충2가 139-126	에스더 6
(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07	에스더 14
(137-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마리아 3

■ 기 타

주 소	지 원 처
(11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21 규장문화사	한나 2
(135-070) -희망의 집 지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	에스더 8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112 사당역 구내	한나 11
(156-052)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2동 310-62	한나 9
(131-130)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사랑의집	한나 8
(152-091)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50-8 에덴하우스	무기명 마리아 11
(110-47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10층 14호	마리아 5
(130-10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330-9	에스더 14
(333-800) 충남 천원군 성환읍 성환리	마리아 14
(210-120)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47-1	한나 9
(461-143) 경기도 성남시 단대3동 564-121	마리아 13
(158-052)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30-15	에스더 9
(151-053) 서울시 관악구 봉천3동 7-281	마리아 6
(763-810)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감호소	전도위원회 에스더 11
(100-392) 서울시 중구 장충2가 139-126	전도위원회 바울협의회
(413-820)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 205	한나 4
종로구 계동 140-2호 현대건설	마리아 7
충현교회 내 대학부(병원전도팀)	에스더 10
충현교회 내 대학부(금 선교지망생들)	에스더 10
충현교회 내 직장전도부	한나 6
충현교회 내 의료전도부	에스더 1
충현교회 내 청년 I 부	한나 7
충현교회 내 청년 II 부	에스더 1 디모데협의회
충현교회 내 대학부 (대학캠퍼스 8개 전도팀)	에스더 13
충현교회 내 대학부(회심원고아원전도)	에스더 4
(152-021)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1동 127-19	디모데 8

독자의 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아볼로!

습관처럼 되어버린 허무감과 막연한 서글픔 밖에 모르던 내 가슴에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웃집 앞은 담 너머로 상체를 내민 붉은 장미꽃을 볼 때마다 다발을 엮어 그대에게 걸어주고 싶던 5월도 초여름의 열기에 쫓겨가면 언젠가 꿈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표현대로 내 이듬에 빛이 된 충현교회를 찾은지 다섯달째가 넘어섰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일을 마치고 귀가할 버스 정류장을 찾기 위해 캄캄한 어둠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방향도 알 수 없고 내가 선 위치도 분간되지 않아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오랫동안 어둠속을 헤매고 있었던지...

그럴 때 왼쪽 저만치서 한 건물이 환하게 밝아지며 하얀 돌로 쌓은 충현교회가 솟은듯 높이 선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등대삼아 제가 어디쯤에서 방황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귀가할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

나 비록 두 눈으로 밝은 세상을 보고 있어도 실은 얼마나 캄캄하게 나날을 지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약을 잘못 사용해서 뇌신경이 마비되자 청력이 사라지고 의식이 흐려져서 인식과 지각이 꿈결처럼 옅고 희박해진 겁니다. 내가 수화도 구화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인식경로에 고장이 있기 때문이지요. 캄캄한 어둠속에서는 주변을 분간할 수 없듯이 나는 의식이 어두워서 현실을 명료히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꿈은 이처럼 캄캄한 데서 헤매듯 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통해 빛이 되어서 바른 길가게 하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껏 나의 신앙은 관념적으로는 믿고 감각적으로는 믿기지 않는 상태였어요. 전능하신 분을 완전하게 의뢰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을 통해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답답했어요.

제가 몽롱한 의식으로 인하여 때로 자아조차 느껴지지 않는다해서 제가 존재치 않는 것은 아니라면 하나님도 홀속에서 꿈틀대는 벌레같은 내 의식에 그 존재하심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무신론 철학자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 인간의 사고나 지각은 물론 그 존재까지도 의식 여하에 달려있음을 생각할 때 내 의식의 장애는 신앙을 포함한 모든 일에 넘기 어려운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자칫 적혀 불태워질 운명이 예정된 것 같은 나무인 내게 주일마다 여러가지 서적과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물을 준 아볼로의 정성어린 지도에 이끌려 마침내 저는 이제 30배의 열매를 맺으려는 자신을 느낍니다.

아볼로가 읽기를 권해 준 책(성경입문연구)이, 초보적 신앙에서 이제껏 머물며 교회에 가도 설교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그저 성경이나 종종 대하는 동안 깨닫는 것이 없어 시원치 않던 속을 하룻밤만의 통독과 더불어 얼마나 후련케 해주던지 그 저술의 명쾌함과 감명이 계속 잊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심판 밖에 받을 것이 없는 반역한 인류에 대하여 수천년 동안 면면히 이어온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속사역으로 요약할 성경말씀을 납득할 때 누구인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만성적인 불신이나 '내게도 너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하고 남을 부러워하여 마치 나의 신앙의 결핍이 고칠 수 없는 기질이나 천성적 조건이듯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특히 참 좋았습니다.

아볼로!

그대는 나에게 우매한 이디오피아 재상 간다게를 깨우쳐 준 사도 빌립과 같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뿐더러,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는 표시이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의미를 띤 세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차원피일 하는 나를 적극적으로 끌고 밀어서 학습을 받게 했으니 꿈에서 뵈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나타날 줄이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아멘.

에바다부 B 드림

신간안내

김창인 원로목사



시편강해설교집 1

본교회 원로 김창인목사의 강해집 제7권인 「시편강해」 설교집이 나왔다.

본 강해집은 31장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관계인식, 절대자를 향한 소원의 간구, 죄에 대한 민감성, 범죄한 심령들에 대한 다윗의 연민과 권면, 위로 등이 실려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출판부 발행

국판 433쪽 값 5,000원

지상강단

본문 / 출 4:18-26

모세가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그의 나이 40세가 된 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 곳에서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도록 부탁하셨다. 그것은 내 백성을 구하는데 앞장을 서라는 것이었다. 그 때 모세는 5번이나 사양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셨기에 가기로 결심하고 장인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본문의 시작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모세를 불러서 일을 맡기셨고 이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니? 모세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죽이려고 하시는가? 사실 죽이려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면 살려서야 할 텐데, 대단히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기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죽이려 하셨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러나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없다. 이유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하나님은 모세를 필요로 하신 적이 없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모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필요로 하시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필요로 하신 적이 결코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

를 사랑하셨을 뿐이다. 정말 필요로 하셨다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지 않으셨어야 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24절 이하에 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 지라 심보라가 차들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을 참으로 내게 피납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 때에 심보라가 피납편이라함은

모세를 죽이려하신 하나님

“임무와 책임보다 더욱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언약의 순종”

은 바로왕이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달리 사랑하셨을 뿐이다. 본문 24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사라”고 말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필요로 해서 키우는 분이 계시겠는가? 단지 사랑하시기에 키우신다.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필요로 하셨는가? 단지 모세

를 사랑하셨을 뿐이다. 정말 필요로 하셨다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지 않으셨어야 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24절 이하에 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 지라 심보라가 차들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을 참으로 내게 피납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 때에 심보라가 피납편이라함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하심이 먼저이지 주어진 어떤 임무나 책임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로 주어진 책임이 크다고 해서 내가 남다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작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여 비열해 질 필요도 없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어떤 임무를 주셨기에 어느 정도의 잘못된 용납하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결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신다. 임무나 책임보다 더욱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언약의 순종이며 성결이다.

김광석(목사, 14교구, 고등부지도)

충현 프리즘

☆ 임진각 기도회 성황

시온성대행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던 임진각 기도회는 예상외로 1천5백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복에 고향을 둔 실향민 성도들의 애절한 소원과 간구는 보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과의 원치 않는 이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아닌가? 가로 막힌 삼팔선은 어느때 열려서 환희의 기쁨을 누릴 때는 언제인가?

두고온 산하, 핏줄로 끈끈하게 맺혀진 혈육

의 정은 자꾸만 식어만가는 현실인데, 그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온성대행진의 전개목적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통일문제가 「복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결사적인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릎꿇고 기도하는 어느 장로님의 모습에서 두 손을 높이들고 복녘을 향해 애소하는 반백의 권사님 얼굴에서, 그리고 아예 아스팔트 위에 무릎과 두손을 땅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기적처럼 성취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날 기도행사를 위해 무척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감사하고 싶다.



☆ 숨어서 봉사하는 일꾼들

시온성대행진 기간 중 숨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이 너무 많다.

차량을 정리하는 일, 청소를 하는 일, 생강차를 끓이고, 생수들을 제자리에 갖다놓고 치우는 일, 직장인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2백 50여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강사(눈물의 성회)를 접대하는 일 등 이루어야 할 수 없다.

누가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

있는 김전도사는 지난 3,4월에도 161부를 기증해 왔다. 기증된 도서명은 다음과 같다.

안일한 신앙의 극복, 노아 홍수,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주의 형상, 나의 형상, 기독교와 철학, 20세기 종교사상, 창조의 하나님(상), 창조의 하나님(하), 사해문서연구, 호쿠마 종합주석(창세기), 문화적 갈등과 사역, 믿음의 육아일기,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다, 복음과 사회(개혁의 메시지), 자유의 노예(사도바울의 가르침 비유), 출판물 유통론, 삶에는 뜻이 있다,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 전도복발, 오늘을

위한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 연구, 십계명, 주기도문 해설, 사도신경 해설, 사도신경 강해, 주기도문 · 십계명 · 사도신경, 십일조, 주기철 설교집, 교회력,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의 침묵(절기 설교집), 교회학교 교사 지침서(절기행사 자료집), 교회학교 교사 지침서(절기행사 자료집), 교육프로그램 자료집, 가상철언, 신약의 십자가, 한 · 영 예식서, 교회 헌법대전, 교회기독교단체의 성공적 운영, 비교 교회론, 목사님 생각은요,

6·25상기 연합기도회 6월 25일 오후4시 영락교회당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회장 한경직목사)가 주관하는 6·25상기 연합기도회가 오는 6월 25일 오후4시 영락교회당에서 거행된다.

이날 기도회는 최훈목사(동도교회) 사회로 진행, 기도예 이종윤목사(충현교회), 성경봉독예 최태섭장로, 공덕귀권사, 찬양에는 영락교회 연합성가대, 설교는 임인식목사(노량진교회)가 각각 맡는다.

특별기도는 ① 한국교회의 각성과 연합을 위하여, ② 한국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③ 북한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그리고 ④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각교단 총회장들이 기도한다.

동 연합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당일 하루 한끼 금식을 하기로 했으며 화해와 사랑의 표시로 전국교회 성도들이 리본을 달기로 했다.

또 공동기도문(작성자: 이종윤목사)을 만들어 전국교회가 낮예배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했다.

이날 예배 이후 평화대행진도 갖는데 영락교회를 출발하여 을지로, 시청앞, 광화문을 경유하여 파고다공원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경, 찬송가, 표어피켓을 들고 행진할 예정이다.

학원선교회 발족준비 전도위원회 회원등록 받아

전도위원회(위원장/윤종성장로)는 앞으로 초·중·고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원선교회를 발족키 위해 회원들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 충현교회 출석하는 성도로서 각급 학교에 적을 둔 교사들이 있으면 전도위원회에 명단을 제출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교사들은 63명으로 밝혀졌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소속학교명)

김은미(개봉국민학교), 변인화(중앙여자고등학교), 김호원(한양국민학교), 권영신(성덕여상), 홍성주(동대문상고), 임연화(성일국민학교), 홍영주(명일국민학교), 최정순(이대원국민학교), 함용식(무학국민학교), 금현숙(홍파국민학교), 변경심(가원중학교), 박광길(양평중학교), 이조영(한영중학교), 박종남(일신여상이사장), 김영숙(공덕국교), 김교동(한영고등학교), 김단용(해성여상), 강세훈(창덕여고), 조삼원(개원중학교), 황영주(성동기계공고), 윤해근(현대고등학교), 이창우(장충고등학교), 최문실(가은고등학교), 김규

완(아주중학교), 최난주(사당중학교), 홍정혜(오산중학교), 이배근(삼성고등학교), 홍인숙, 유재훈(동양고등학교), 윤숙자(광희국민학교), 김혜숙(성남성일여상), 성점요(한남국민학교), 조숙희(오금중학교), 이상호(미아리북공업고교), 정정인(은로국민학교), 이석정(잠실국민학교), 안준영(연북국민학교), 최형렬(경기여주여중학교), 김미예(인현고등학교), 임창식(수도전기공고), 강준희(성내국민학교), 권 정(파천중학교), 최승운(광남고등학교), 조균실(도성국민학교), 천기성(남강고등학교), 박찬희(사당중학교), 나종원(대현국민학교), 유재선(동대문상고), 정영덕(여의도중학교), 나희주(송실중학교), 정상수(중대부고), 김유리(금호여중), 김경희, 안병호(경기연천왕산국교 교감), 김기열(금곡여고 교장), 최연화, 신동범(영동중학교), 박현숙(영관여중), 이인상(강문고 교장), 김귀자(남사국민학교), 황선갑(한광고등학교), 이병두, 아교숙.

김연순공로전도사 충현도서관에 도서기증

본교회 김연순 공로전도사가 매월 기념도서를 충현도서관에 기증하고 있다.

매월 30여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고

그리기, 글짓기 대상에 이효조, 박인정 어린이 차지

지난 6월 6일 실시한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시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그림그리기

대상: 이효조(유치부 꽃 11반)

최우수상: 양혜선(유치부), 박연주(유치부)
박진경(유년부), 박성웅(초등부)
490번(6A12)(소년부)

▲ 글짓기

대상: 박인정(초등부 4-14)

최우수상: 민경나(유년부), 권민정(초등부)
권정미(소년부)

■ 대상 ■

참 좋은 우리교회

우리교회는 아름다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기 연못은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척 아름답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생길 쯤 저는 손에 껌질이 까지는 증상이 생겨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심해져 저도 무척이나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가던 길에 베데스다 못에 손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 손이 깨끗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열린 손을 넣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연못 가까이로 가다가 믿음으로 물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고 언뜻 손을 보니 손이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엄마께서 "할레루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기뻐 열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등부 136번 4-14반 박인정

■ 최우수상 ■

행복한 우리 가정

참 좋으신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현교회 유년부에 다니는 민경나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행복한 우리가정을 자랑하려고 해요. 먼저 이런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다닙니다. 우선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남을 잘 도와주시고 교회에 빠짐없이 다니세요. 연극도 잘하세요. 또 우리 아버지는 회사도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세요. 우리 오빠는 매일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밤마다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쁜 마음씨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요. 우리 가족이 교회에 빠진 적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다니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 덕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내것을 남과 나누어 갖고 착하고 예쁘게 살려고 해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세요.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겨야 되겠지요.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년부 2-11반 민경나

북한 어린이에게

북한에 사는 친구에게

안녕? 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충현교회 초등부 민정이야.

오늘 너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게.

너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나?

충현교회 상담실

상담 교역자/이두란전도사
상담 장소/ 선교관 101호실

우리 교회는 상담실이 설치되어 교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실 장소는 선교관 101호실이며, 평일엔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주일에는 오전 11시~오후4시까지 상담교역자인 이두란전도사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은 결혼문제, 신앙문제 및 기타 고부간의 갈등과 부부관계, 그리고 이혼·재혼문제 등이 대화를 통하여 상담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 온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어.

너는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르겠지?

천국에는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나쁜 짓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야. 너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자. 그리고 복음화 통일이 되도록 기도 열심히 하자.

또 늘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어.

나도 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착한 친구가 되도록 기도할게.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럼 복음화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있어.

복음화 평화통일이 되면 그때 만나자.



되는데 지난 5월 한달 동안에 90여건의 상담에 응해주었음을 이전도사는 밝히고 있다.

특별히 상담에 응하는 자의 신원을 절대 보호하고,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을 지키고 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은 서슴치 말고 상담실을 노크하도록.

그리고 천국에 가도록 노력해.

만날 때까지 안녕!! 초등부 4-14반 권민정

참 좋은 우리교회

우리 교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36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약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무척이나 커졌습니다.

성전의 본당은 오천명 이상이 예배드릴 수 있는 좌석과, 텔레비전 설치 등으로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놀고, 먹는 등 주일이면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모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광스런 충현교회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구경을 하며, 놀라는 것을 보면 기쁨이 절로 넘칩니다.

요전에 우리 교회에도 베데스다 못이 생겼습니다. 구약, 신약시대를 연상시키는 기분이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평화스럽고 맛있는 우리 교회를 구경시켜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엇이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질서를 안 지키고 교회물건을 파손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 속에 지었는지 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질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성도들의 믿음이 짙다면 그야말로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서서히 좋은 교회가 되어갑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충현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못의 분수대의 물소리와 찬사들의 찬송 속에 우리들이 자라듯이 무럭무럭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라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더욱더 예수님 안 믿는 많은 교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시온성대 행진에 힘껏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담과 정성과 눈물로서 이루어진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더욱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커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께 참 좋은 교회입니다. 소년부 5년 8권 정미

임진각기도회 스냅



▲ 보약을 향해 무릎꿇고 기도하는 교역자·장로들



▲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여성도들



▲ 이종운 위임목사의 간절한 기도모습



▲ 땅에 두손을 대고 복음화된 조국통일을 간구하는 성도들

여전도회 활동 이모저모

윤병국 군목님께

머칠을 미루다가 펜을 듭니다.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충현교회 제6지회 에스더여전도회를 맡고 있는 어수덕권사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인사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금년부터 저희 에스더 여전도회에서 귀 교회를 지원하게 되어 하나님 뜻인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국군장병의 복음전파에 수고하고 계실 목사님을 생각할 때 금급하고, 뵈고 여러 말씀 나누고 싶어집니다. 마스크를 통하여 대략 군의 내부 생활을 알 정도여서 그곳의 실정을 상상해보지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군 막사 내에 있는 교회일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서울 근교라면 저희가 방문, 그곳의 실정을 알고저 원하오나 여의치 않아 우선 지면으로 안부드리오니 소식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오시면 저희 교회에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총이 귀 부대와 교회에 함께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충현교회 여전도회 어수덕권사

어수덕 권사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목 대위 윤 병국

입니다.

에스더회 성도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를 후원해 주시는데도 찾아뵙지 못하고 먼저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83년 군목으로 들어와서, 군사역에 보람을 느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라는 확신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부딪히며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에스더회의 도움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찾아 뵈지도 못하고, 충현전도회 앞으로 영수증과 서신만을 보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에서 5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나갈 기회를 얻어서 권사님을 찾아 뵈도록 하겠습니 다. 제가 있는 곳은 오지인데, 주위에 은행이

윤병국 목사님께

목사님의 답신을 받고 곧 소식전하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라오며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귀 부대에 평안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바야흐로 계절은 화려하게 변화하여 초여름 날씨의 화창한 날, 목사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에스더6지회와 기린대교회

국군장병의 복음전파에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총이!

군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욱 군사역에 봉사하렵니다.

없이 입금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때에 소식을 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 권사님과 에스더회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곧 뵈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저희 여전도회에서는 맡겨진 사명으로 순종하고저 합니다. 그럼 군선교활동하시는 목사님과 귀 교회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 부대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9. 4. 25.

1989. 4. 11.

군목 대위 윤병국 드림

충현교회 여전도회 어수덕 권사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6월 23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25과 진리 운동의 기수

성경: 딤후 3:14-16

요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딤후 1:15 하)

찬송: 245, 246, 248장

1.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의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진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 시대에 충현교회가 중차대한 사명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1)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천사를 사용하신 적이 가끔 있었다. (눅 1:26-33, 2:10, 마 28:1-7) 그러나 통상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을 사용해서 진리를 배부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를 택해서서 그들로 인하여 복음진리가 전수되게 하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대의 진리를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2) 진리를 간직하여 지켜주기 때문이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여 경솔히 여기고 배척하나 교회는 진리를 보배처럼 혹은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간직한다. 또한 진리를 지키는 그 진리가 변질 왜곡되지 않도록 잘 보존함을 뜻한다. 진리를 파수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진리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 아무 유익과 기여를 할 수 없게 된다.

(3) 진리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충족한 것이나 그 해석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교회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 진리의 영의 지도를 받아 진리를 해석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 결과 많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 등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곤고한 이 시대에 절실히 요청되는 복음 진리의 해석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다.

(4)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이다.

기둥은 그 건물 구조를 떠받드는 사명을 감당하고 터는 그 건축물 전체가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진리의 체계를 높이 들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 교회는 어둔 세상에 등대처럼 우뚝 서서 진리를 높이 들어 증거한다. 교회가 진리 운동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세상은 큰 소망을 가지게 된다.

2. 진리 운동의 기수되자.

우리교회는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깨끗케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주 앞에 흠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엡 5:25-27) 개인적으로는 거듭난 사람,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하여 도처에 말씀 연구 운동이 일어나고 성경공부 붐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교회는 말씀을 높이고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절대표준으로 삼고 사는 운동이 왕성해야 한다. 진리로 자아갱신과 교회갱신을 이루고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민족복음화, 북한선교를 이루고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야 한다.

■ 함께 생각합시다

1.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쓰여졌는가?
2. 우리교회가 진리 운동의 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3. 진리를 말로만이 아니고 생활로 나타내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하는가?(골 3:12-17)

■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주신 충현교회가 진리를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빛을 높이 들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해주소서.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인격과 삶을 통하여 진리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